

밤도리 PSAT

2025 7급 PSAT
언 · 상 · 자
전 문항 간략 해설

무단 재판매를 엄금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밤도리 PSAT>

티스토리 블로그 <PSAT 푸는 밤도리>

[언어논리]

[1번] ①

- ① (3문단) 신라의 왕 내물마립간이 고구려 영토를 거쳐 전진에 보낸 사신이 황제 부견을 알현해 친서를 전달함.

[2번] ①

- ① 불내는 동예에서 가장 강한 집단이었고, 낙랑군이 고구려에 의해 정복돼 사라지면서 동예가 있던 곳이 고구려 땅이 되었음.

[3번] ③

- ① (2~3문단) 배리어프리디자인은 특정 사용자에게 특화시키는 디자인이고, 인클루시브디자인은 사용자 특성에 무관하게 모두가 쓸 수 있게 하는 디자인임. 서로 영역이 다름.
- ② (3문단)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이라 오히려 사용 과정에서 차별감을 느낄 수 있음.
- ③ (1문단)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 그대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경우에 해당함.

[4번] ⑤

- 1문단 끝자락에서 글쓴이가 논제를 던졌으므로 미괄식 글이고, 따라서 논제 (미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이해한 것일까?)를 기억하고 글 마지막 부분으로 점프함. "우리는 후대 미술가들의 설명과 해설을 기반으로 미적 가치를 이해한 것이지, 미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스스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확인하고 정답 선지 체크.

[5번] ②

- ① (1문단) 재개념화되기 이전에 연구문화 및 규범을 일컫는 개념이었음.
- ② (3문단) 선지의 설명 그대로임. 연구 과정 및 절차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포함한 중간산출물을 공유하는 활동임.

[6번] ③

- ① (2문단) "1965년에 미국의 코미사가 한국 자본과의 합작 투자로 한국 최초의 반도체 조립 업체인 고미전자산업을 설립했다."
- ② (1~2문단) 앞 선지의 코미사가 만든 게 한국 최초의 반도체 조립 업체인데, 외자도입촉진법은 1960년에 제정됨.
- ③ (1문단) 전기업공업통제협회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출범했고, 반도체 기술은 196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함.

[7번] ④

- 청자인 담임 교사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창희가 학교에 왔습니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 창희가 '학교'라는 표준 위치로 이동했느냐는 의미가 청자인 담임 교사에게 이동했느냐는 의미보다 더 어울림. 앞의 해석보다는 뒤의 해석으로 보는 게 타당함.

[8번] ②

- (가) 빈칸 앞쪽에서 중국어에서는 "모계인지 부계인지, 혈연관계인지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인지, 나의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가 구분되어 호칭에 드러난다"고 했음. 중국어 '백부'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테니 ①, ②의 "그가 나의 부계 남성 혈족이며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는"이 자연스러움.

- (나) 미래 시제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저축률이 낮고, 현재와 미래에 차이가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저축률이 높았다고 함.
- ②의 설명에 어울리는 현상임. 미래 시제가 엄격하게 구분되면 현재와 미래가 동떨어졌다고 여길 수 있고, 현재와 미래에 차이가 없으면 미래를 곧 다가올 현재라고 여길 수 있음.
- ※ 미래 예측이라는 탄소리를 하는 ①을 소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

[9번] ③

- ㄱ. 올의 제안에 대응됨. "B시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도입 이후 담당 직원들의 민원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라고 했으므로 이를 검증할 자료가 필요함.
- ㄴ. 병의 제안에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의 주장은 악성 민원의 담당 직원에게 종결권을 부여하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임. C시는 이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했으므로 A시와 C시의 업무 만족도를 비교해봤자 주장을 검증할 수 없음.
- ㄷ. 정의 제안에 대응됨. D시가 캠퍼드 녹화 고지 정책 도입 후 옥설과 폭언을 하는 민원인이 줄었다고 했으므로 이를 검증할 자료가 필요함.

[10번] ④

- 지문에 따라 순서도의 ㉠~㉣을 채우고 시작함. ㉠과 ㉣에는 ○○청, ㉡에는 기관, ㉢은 신청, ㉣은 삭제 요청, ㉤은 결과 통보가 들어감.
- 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인지는 ○○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임.
- ② ○○청으로 같음.
- ③ 조치가 미흡한 경우 삭제를 재요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으로 되돌아감.
- ④ 포함된 것이 인정되면 해당 게시물 관리 기관에 삭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을 수행하는 게 맞음.

[11번] ③

- ① (3문단) 케이스타는 중성 입자 빔 주입 방식과 공명 가열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둘 다 플라스마를 가열해 고온으로 만드는 방식임.
- ② (2문단) 이온 공명 가열은 수십 메가헤르츠, 전자 공명 가열은 수만 ~ 수십만 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함.
- ③ (3문단) 중성 입자 빔 주입은 외부에서 가속된 중성 입자를 투입하는 방식임. 플라스마에 투입한 뒤에 가속하는 게 아님.

[12번] ③

- ㄱ. (1문단) 도체 내부의 자유 전자는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되도록 위치하게 됨.
- ㄴ. (2~3문단) 금속에 추가된 전자들은 표면에 존재하게 되고, 표면에 있는 전자에는 표면에 수직인 바깥 방향으로 전기력의 합력이 작용함.
- ㄷ. (2문단) "대전된 상황에서도 금속 내부의 모든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은 0이어야 한다."

[13번] ①

- (가) 열거된 장점들을 보면 (가)는 직접 관리도 필요 없고 수확 정도 확인도 필요 없음. 지대량을 미리 정하는 정액제 형태인 '도지'여야 이러한 장점들이 적용될 수 있음.
- (나) 도지는 풍흉에 따른 지대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예상과 달리 풍년이 들었다면 소작인에게 더 유리함. 예상보다 많이 수확했지만 지대량은 미리 정해둔 만큼만 낼 수 있으므로.
- (다) 당해 연도의 작황 수준이 반영된다면 당연히 도지가 아니라 타작과 유사할 것임.

- [14번] ③
- ① 없는 내용임.
- ② 야생말이 길들여진 건 2문단의 후기 홍적세 시기를 한참 지난 기원전 3,500년경임. 그 전에 운송 수단으로 썼을 리 없음.
- ③ (3문단) 시기와 지역 모두 문단 내용과 일치함.

- [15번] ④
- 요소 분석으로는 설명에 도달할 수 없으니 단위 분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의 주장임. 그런데 ㉣와 같이 단위 분석이 설명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의 설득력이 떨어짐.

오선지들은 말이 복잡해 보이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듯싶지만, ㉠의 입장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밖에 안 나오는 탄소리들임. (왜 약화하지 않는지 깊이 분석 금지)

- [16번] ⑤
- 모음집 1번 문항과 같은 구조의 양도논증 형태. 조건4로부터 뺄어나가면 선-박-오 3명이 선발되는 세계와 이-남 2명이 선발되는 세계 둘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음. 이를 표로 필기해두고 선지를 보면 ⑤가 정확히 옳은 선지.

- [17번] ④
- 결론인 "심적 대상은 없다"를 도출하기 위한 전제를 빈칸에 추가하는 문제임. 결론이 단순문이므로 이것이 도출될 수 있는 전제를 먼저 찾아 봄. 맨 앞 문장을 후건부정하면 도출 가능. 그런데 "심적 대상은 물리적 대상과 같다"를 직접 도출시킬 수 있는 다른 전제가 없고, 비슷한 명제가 바로 다음 문장 전건에 들어 있음. 만약 이 전건이 부정된다면...

- 1) 심적 대상이 있다면, 심적 대상은 물리적 대상과 같지 않다.
- 2) '심적 대상이 있고 심적 대상이 물리적 대상과 같지 않다'는 거짓이다.

1)과 2)를 엮으면 '심적 대상이 없다'가 도출될 수 있음. 심적 대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밤틀들 매일추론으로 훈련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 문장의 전건을 부정해야 하니 그 후건도 부정되어야 하고... 쪽 따라가면 결론 바로 앞 문장까지 계속 이어짐. "심적 대상에 관해 검증 불가능한 지식이 존재한다"가 거짓이라면 후건부정으로 쪽 돌아가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음.

- [18번] ⑤
- 줄글 부분에서 표를 세팅하고 시작함.

	과			행			
	A	B	C	D	E	F	
ㄱ							2명×2
ㅇ							
ㅂ							1명×2
ㅅ							

조건1과 조건2를 적용하면,

	과			행				
	A	B	C	D	E	F		
ㄱ							①	2명×2
ㅇ	X	X	X					
ㅂ								1명×2
ㅅ								

그다음 조건3과 조건4를 보면 A와 D가 혼자 배치되고, 나머지 4명이 2명씩 짝을 짓되 '과'와 '행'이 짝이 되어야 함. 따라서 '과'가 들어갈 수 없는 을 부서에는 D가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고, A는 자연스레 갑 부서로 확정됨.

	과			행				
	A	B	C	D	E	F		
ㄱ	O	X	X	X	X	X	①	2명×2
ㅇ	X	X	X	O	X	X	①	
ㅂ	X			X			②	1명×2
ㅅ	X			X			②	

더는 확정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선지를 보면,

- ① C는 병과 정 중 어느 쪽인지 아직 모름.
- ② B가 E와 F 중 누구와 짝을 짓는지는 모름. E가 병에 함께 가도 문제없음.
- ③ B, C 모두 알 수 없음.
- ④ 확정된 것과 반대로 쓰여 있음.
- ⑤ F가 정에 배치되었다면 같은 '행'인 E는 다른 부서로 갈 수밖에 없음.

- [19번] ②
- 실험 1이 '강한 독'을 먹은 새, 실험 2가 '약한 독'을 먹은 새라는 것 정도는 필기되어 있어야 함.

- (가) 실험 1에서 강한 걸 모방한 c이든 약한 걸 모방한 d이든 다 회피했음. 실험 1은 독성이 강한 개구리를 먹인 경우.
- (나) 강한 걸 모방한 c를 회피하지 않은 건 실험 2임. 독성이 약한 개구리를 먹인 경우.
- (다) 한쪽에서는 둘 다 안 잡아먹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강한 걸 모방할 때 잡아먹힐 수 있음. 어떤 경우에도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약한 걸 모방해야 함.

- [20번] ④
- 유충 시기에는 $\alpha < \beta$
 변태 시기 동안 α 는 커지고 β 는 작아짐

- ㄱ. 성충일 때 $\alpha > \beta$ 가 되었다면 오히려 성충일 때 차이가 더 커졌을 수도 있음. 변태 시기의 증가폭/감소폭을 정확히 모르므로. $1 < 2$ 였다가 $5 > 3$ 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볼 것.
- ㄴ. 성충일 때 $\alpha = \beta$ 라면 당연히 $\alpha < \beta$ 일 때보다 둘의 차이가 작음.

- [21번] ⑤
- ① 정답이 (b)임.
- ② (a)는 틀린 답임.
- ③ 정확도를 바꾼다고 (a)가 기저울 오류가 아니게 될 이유가 없음.
- ④ ③과 마찬가지로.
- ⑤ 확보된 모든 증거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증거의 원칙에 위배됨.

- [22번] ④
-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고 풀이 시작. (작년 5급 해설에서 보셨죠?)

	비감염	감염
음성	990,000	0.01
양성	9,999	0.99

- ㄱ. 제대로 판단하면 음성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해야 하고, 이상하게 판단한다고 볼 근거도 없음.

- ㄴ. 기저울을 무시한다면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판정의 정확도가 99%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것임.

[23번] ㉔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확정 점수에 부서장의 요청에 따른 점수를 더해 각자의 점수 범위를 구하면 갑은 1~2점, 을은 0~3점, 병은 2~4점임.

- ㄱ. 갑의 최고점이 2점이고 을의 최저점이 0점이므로 갑>을도 가능함.
ㄴ. 을의 최고점이 3점이고 병의 최저점이 2점이므로 을>병도 가능함.

[24번] ㉑

- (가) 이에 따라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따라 나와야 함.
A마트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㉑, ㉒를 넣으면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게 됨.
(나)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무휴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고,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만 가능함.

[25번] ㉓

- ㄱ. 선지와 같은 해석이라면 임차인인 B가 C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갑이 옳고 을이 틀림.
ㄴ. 3조2항에 적시된 요건 중 B의 주민등록은 마쳤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없는 상황임. 갑이 A의 자필 계약일자를 확정일자가 기재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으니 B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명됨. 을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니 확정일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주장할 것임.
ㄷ. 임차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목적이라면, 임차인인 B가 계약 종료 통지를 했으므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갑은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니 옳지 않고, 을이 옳음.

[상황판단]

[1번] ①

- ① (1조 3항)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번] ①

- ① (2조 2항)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이 들어가 있음.

[3번] ②

- ① (△△조 1항)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조 3항~4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4번] ②

- ① (1조 1항) 제목부터가 '신고'이기도 하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함.
 ② (2조 1항 2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2호가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므로, 후자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자에 가입해야 요건을 갖추 수 있음.

[5번] ⑤

- ① (2문단) 동해안에서는 바닷물을 끓였고, 조석 간만의 차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쓴 방식임.
 ② (3문단) 경강상인은 소금도 거래했음.
 ③ (1문단) 소금의 최대 생산지는 서해안의 갯벌 지대임.
 ④ (3문단) 유통지가 마포나루라서 마포염이 된 것임. "염전 하나 없는 마포"라고 대놓고 힌트를 줬으니 여기서 소금이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음.

[6번] ①

- 만들값을 안 받았으므로 떡볶이 3,000원을 제외한 12,000원이 모두 어묵값임. 한 개에 1,000원이므로 어묵 12개를 먹었고, 갑이 을보다 2개 더 먹었다고 하니 2 차이 나도록 12를 쪼개면 (7, 5)가 됨. 을이 먹은 어묵은 5개.

[7번] ②

- 각 선지에 대해 요건과 맞춰보며 소거해나감.
 ① A가 16번에 있으면 14, 15번에 이어 3연속이 되므로 불가능.
 ② B가 2개~6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고, 개수 초과한 정답도 없으며 3연속 정답도 없음. 가능한 걸 물었으니 바로 정답으로 고르고 풀이 종료.

[8번] ⑤

-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43명보다 적은 B 소거.
 세미나 시간이 타 부서 예약과 겹치는 A 소거.
 프로젝터를 사용할 수 없는 D 소거.
 남은 C, E 중 다과 제공이 가능한 E를 선정함.

[9번] ③

- ㄱ. (2문단) 이 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함.
 ㄴ. (3문단) 방문목욕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입소자는 받을 수 없음.

- ㄷ. (3문단)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용구급여는 제공받지 못한다.

[10번] ④

- 세트 둘째 계산문제이므로 앞서 보지 않은 4문단으로 바로 시선을 옮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乙은 무조건 0원임. ①, ③, ⑤ 소거하고 甲과 丙 비교로 넘어감.

- 甲: 재가급여와 복지용구급여 모두 본인부담비율 15%이므로 합쳐서 계산함. 방문목욕 10회 70만 원과 전동침대 구입비 30만 원을 합쳐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

- 丙: 노인요양시설 보호 11일 77만 원 × 시설급여 본인부담비율 20% = 15.4만 원으로 甲보다 큼. ④ 확정.

[11번] ⑤

- ① (1조 3항)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1조 2항)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도 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음.
 ③ (2조) "건축물 증축"은 이 조에서 다루는 허가 대상 행위가 아님.
 ④ (2조 1호) 산책로 설치 행위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민간 기업이 설치하는 건 허가할 수 없음.

[12번] ④

- ① (□□조 1항)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조 2항) 근로자대표가 설명을 요구하는 데 위원회 동의를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음.
 ③ (□□조 3항)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는 사업주임.
 ④ (△△조 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 (제2항에 따른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13번] ③

- ① (○○조 2항 1호) 건물 소유자는 소방활동 비용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
 ② (△△조 1호)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부상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함.
 ③ (□□조 1항) 소방대장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한 일시적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4번] ③

- A가 B보다 한계비용이 1만 원 작고 고정비용이 100만 원 있으므로, 생산단위가 100개를 초과하면 A에 생산량을 몰아줘야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음. 지문을 읽고 이 정도만 정리해둔 뒤 선지로.

- ㄱ. 생산량이 100개를 초과하므로 A에 몰아줘야 함.

- ㄴ. 생산량이 100개를 초과하므로 A에 몰아줘야 함. 각각 하루에 최대 150개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 A 150개, B 50개의 배분이 될 것임.

- ㄷ. A의 고정비용이 50만 원으로 감소하면 규모의 경제가 더 빨리 발생하니 A에 몰아줘야 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음. ㄴ과 같이 배분됨.

[15번] ④

- ① 금연, 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2%p씩 높아지더라도, 그게 꼭 세 항목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비율인지는 알 수 없음. 예컨대 금연에서 늘어난 2%p가 절주, 걷기는 안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음.

- ② 가장 낮은 값이 아니라도 건강생활실천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금연 10, 절주 20, 걷기 30인데 건강생활실천율이 5인 상황에서, 금연 10은 모두 절주를 하고 있지만 걷기는 5밖에 안 하고 있다면? 걷기에 5%p를 더해 주면 건강생활실천율이 오를 것임.
- ③ 두 항목의 교집합은 알 수 없음.
- ④ 한 항목이라도 30% 미만의 비율이라면, 세 항목의 교집합이 30% 이상이 될 수 없음. (비율이 어려우면 인원수로 생각해 볼 것. 100명 중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30명이 안되는데, 금연&절주&걷기를 다 하는 사람이 30명 이상일 수 있을까?)

[16번] ②

1점당 수강료가 가장 싼 것부터 선택하면 B 일반 - A 일반을 먼저 선택한 뒤 C의 속성을 채우게 됨. C의 일반이 속성보다 3천 싸긴 하지만, C를 속성에서 일반으로 바꾸면 A나 B를 일반에서 속성으로 바꿔서 3천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름. 조합은 이대로 확정.

1점당 수강료가 가장 싼 쪽에 점수를 몰아줘야 하니 과락 선에 맞춰서 점수를 3분할해야 함. 40점, 40점, 70점이면 과락 없이 150점 이상을 만들 수 있음. 가장 싼 3,000원에 70점, 나머지 5,000원과 13,000원에 40점을 주고 계산하면...

21만 + (18,000원 × 40점) = 93만 원.

[17번] ①

갑을병의 변수 · 속성 표를 그려놓고 대화를 따라가며 추론함.

甲: 저는 C우체국에서 근무하지 않아요.
→ ㄱ에 A/B 필기.

乙: 저는 甲과 직급이 같아요.
→ ㄱ, ㉠의 직급 행에 등호 표시, 3급은 A에만 있으므로 '3 X' 표시.

丙: 저는 A우체국에서 근무하지 않고, 乙이 근무하는 우체국의 어느 공무원보다도 직급이 높아요.
→ C는 5급뿐이라 다른 우체국보다 직급이 높을 수 없으므로 ㅂ은 B우체국 확정. 이 시점에서 丙은 B우체국 4급=국장으로 확정되어 ④, ⑤ 소거.

B우체국은 4, 5급뿐이므로 어느 공무원보다도 직급이 높으려면 ㉠은 5급뿐인 C우체국으로 가야 함. ㄱ은 A우체국 확정. C우체국에 5급뿐이니 甲도 乙과 같은 5급으로 확정되고, A우체국 5급은 팀장이므로 ①이 정답.

[18번] ①

10층이 안되는 E를 소거.
2025년 8월 이후 입주 가능한 D를 소거.
담보 대출이 있는 B를 소거.
A는 전세 보증금이 2.3억을 초과하지만, 불박이장이 있으므로 통과.

남은 A, C 중 대한동 매물인 A를 선택함.

[19번] ②

주택을 소유한 甲 소거.
편도 거리 50km 미만이고 통근 시간도 1시간 미만인 丁 소거.

乙은 질병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한도액이 35만 원인데, 월세가 30만 원이므로 지원액도 30만 원.

丙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그 이외의 자'로서 지원 한도액 20만 원이고, 월세가 이보다 크므로 지원액은 20만 원.

戊은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원 한도액이 25만 원이고, 월세가 이보다 크므로 지원액은 25만 원. 셋을 합쳐 75만 원.

[20번] ③

최근 1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C를 소거. 나머지는 모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결과는 다음과 같음.

A: 3점 + 2.5점 + 2.1점 - 1점 = 6.6점으로 통과.

B: 1점 + 5점 + 1.2점 = 7.2점으로 대상자.

D: 3점 + 3.5점 + 1.5점 - 1점 = 정확히 7점으로 통과.

E: 5점 + 1.5점 + 0.9점 = 7.4점으로 대상자.

[21번] ④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굳이 '정석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지 말 것. (비단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님. 피셋에 정석이 어딤?)

월요일 아침에 입어야 하는 셔츠 = 1번
월요일 점심에 맡겨야 하는 셔츠 = 2번 ~ 8번
월요일 저녁에 찾아오는 셔츠 = 9번 ~ 15번
총 15벌

[22번] ③

甲乙丙이 전부 丁과의 전적을 이야기하므로 丁이 가질 수 있는 카드에 집중. 丁이 세 사람에게 대해 1승 1무 1패이므로, 승패 조합에 모두 들어가 있는 카드는 丁이 가질 수 없고(무승부가 불가능), 승패 조합에 1개 이하 들어가 있는 카드 역시 丁이 가질 수 없음(1승 1패가 불가능 / 2무 이상이 발생).

따라서 丁은 불곰과 사자 카드를 가질 수 없음. 얼룩말과 하이에나는 각각 경우를 만들어 보면,

ㄱ	ㅇ	ㅂ	ㅅ
하	사	불	얼
사	얼	불	하

위의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丙이 어느 경우든 불곰 카드를 가지므로 ③이 정답.

[23번] ③

기존 식권의 총액이 59,000원이고, 4,500원과 5,500원을 합쳐 이 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임. (이하 간략히 590과 45, 55라고 쓰기로 함) 작은 수를 조합해 특정한 큰 수를 만들어야 하므로 우기기 상황으로 간주하되, 새로운 식권의 수량에 제약이 없으므로 590에 가깝게끔 가정해서 시작함.

방법a) 55가 12장 있다고 우기면 총액이 660원. 55 1장을 45로 교체할 때마다 10씩 줄어드므로 7장만 교체하면 590을 만들 수 있음. 12장 확정.

방법b) 55와 45를 합치면 100이므로, 합친 쌍 5개로 500을 만들고 45 2개로 90을 추가해 590을 만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함.

[24번] ④

선지를 이용해 비교군을 좁혀 해결함.

A는 최소한 3일째 이후에 싹이 틀 수 있으므로, 4월 2일은 B임. ① 소거. 4월 1일의 날씨는 '맑음'임을 알 수 있고, 4월 3일에 A가 싹을 틔우지 않았으므로 4월 2일의 날씨는 '비'임.

4월 2일이 '비'이므로 A가 싹을 틔우려면 4월 5일은 되어야 함. 4월 4일은 D임. ②, ③ 소거. D가 싹을 틔웠으므로 4월 3일의 날씨도 '비'임.

만약 4월 4일의 날씨까지 '비'라면 C의 조건이 충족돼 4월 5일에 싹이 텃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음. 따라서 4월 4일의 날씨는 '맑음'임.

4월 5일의 날씨가 어느 쪽이든 6일에 A, C가 싹을 틔울 수 있지만, 만약 5일에 비가 와서 6일에 C가 싹을 틔웠다면 7일에 A가 싹을 틔우는 게 불가능함. 이를 연속 맑음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5일이 맑음이고 A가 6일에 싹을 틔웠어야만 함(6일에 비가 오면 다음날 C가 싹을 틔울 수 있음). ④ 확정.

[25번] ⑤

주어진 상황에 따라 확정 정보부터 표를 채우고 시작함. 평가를 받은 건 알지만 우수인지 보완인지 모르면 큰 동그라미만 쳐 둬م.

	ㄱ	ㅇ	ㅂ	ㅅ	ㅍ	
1		우	X	X	0	3↑
2				X	0	3↑
3				X	0	3↑·3우

1분기는 丙, 丁이 X이므로 합계조건을 만족하려면 甲乙戊 모두 평가받았어야 함. 戊는 매번 평가를 받았으니 보완일 테고, 甲도 보완이어야 함. 만약 甲이 우수라면 '보완 2개 이하' 조건과 합계조건에 따라 丙, 丁이 2분기에 모두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야 함. 그러나 丁이 빠져 있으므로 이 경우는 불가능. 2분기에는 乙이 빠지고 丙이 평가를 받았을 것임.

	ㄱ	ㅇ	ㅂ	ㅅ	ㅍ	
1	보	우	X	X	보	3↑
2	0	X	0	X	0	3↑
3				X	0	3↑·3우

3분기에도 丁이 평가를 안 받았었는데, 이제는 丁이 평가받은 지 가장 오래된 게 분명하므로 만약 '보완 2개 이하' 조건이 발동했다면 이 상황은 성립할 수가 없음. 그게 발동하면 丁부터 3분기 평가에 들어가야 하니까. 따라서 2분기 평가는 전부 보완이고, 그 셋이 3분기에 평가 대상으로 그대로 넘어감.

	ㄱ	ㅇ	ㅂ	ㅅ	ㅍ	
1	보	우	X	X	보	3↑
2	보	X	보	X	보	3↑
3	0	X	0	X	0	3↑·3우

3분기는 우수 3명인 걸 알고 있으므로 표 완성. 1분기 2번, 2분기 3번으로 보완이 총 5번 부여되었음.

[자료해석]

[1번] ④

배점 그림(딱 차면 그대로 반영, 반쪽이면 50%)을 파악하고 나서 닥치고 계산 모드로 진입.

갑: 100% 60점 + 50% 10점 = 70점

을: 100% 70점 동점 (이때, 동점이므로 갑을이 소거된다고 판단)

병: 100% 60점 + 50% 15점 = 75점

정: 100% 50점 + 50% 35점 = **85점**

무: 100% 40점 + 50% 40점 = 80점

[2번] ④

ㄱ. 2018년 교원수는 3,0--이고 원아수는 42,3--임. 10배 넘어감.

ㄴ. 첫 구간(17→18)에서 유치원수는 늘었는데 원아수는 감소하였음.

ㄷ. 2017년 원아수는 44,0--이고 2023년은 34,7--임. 90이 넘게 감소했으니 440의 20% 이상임.

[3번] ⑤

2023년 '갑'시의 전체 민원건수는 145,945건으로 전년 126,866건 대비 15% 이상 증가하였다. 2023년 월별 민원건수는 8월에 가장 많았고, 1월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 모두 <표>에 있는 22년, 23년 월별 민원건수로 작성 가능함.

2023년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의 민원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 '행정' 분야 순으로 많았다. 특히, 민원건수 상위 3개 분야가 전체 민원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 '분야별 민원건수 비중'을 다루는 ②가 필요함.

2023년 지역별로는 A 지역의 민원건수가 60,433건으로 '갑'시 전체 민원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B 지역의 민원건수는 35,904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 '지역별 민원건수'를 다루는 ④가 필요함.

B 지역의 인구 100명당 민원건수는 30건 이상으로 '갑'시에 속한 A ~ E 지역 중 가장 많았다.

→ ④와 엮어 '지역별 인구'를 다루는 ①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는 지표임.

2023년 '갑'시 민원의 상위 10대 키워드에는...

→ 마지막 문단이므로 키워드만 빨리 캐치해서 ③을 소거하고 ⑤를 골라 풀이 종료.

[4번] ④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83.8%이고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을 다루는 ① 필요.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로는 'TV 또는 라디오'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문'과 '동영상 플랫폼'이 그 뒤를 이었다.

→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를 다루는 ⑤ 필요.

공적개발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비율은 77.8%로 반대 비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공적개발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를 다루는 ③ 필요.

2024년 공적개발원조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족함'이 48.0%, '적정함'이 31.2%, '과다함'이 20.8%로 나타났다.

→ '공적개발원조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다루는 ② 필요. 남은 ④ 골라 풀이 끝.

[5번] ②

실제, 최대 각각 합계가 있으므로 빈칸은 세로 합으로 구할 수 있음.

A: 최대 5 대비 실제 4 = 80%

B: 최대 9 대비 실제 7 = 77%

C: 최대 9 대비 실제 6 = 66%

D: 최대 12 대비 실제 9 = 75%

계산이 쉬우므로 전부 계산해놓고 풀든 선지를 소거해가며 풀든 큰 차이가 없음.

[6번] ③

① 단맛 최고점은 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만델링(5점)임.

② 짐바브웨 AA+는 향과 단맛이 4점으로 같음.

③ 바디감 최하위는 도미니카 AA(1점)이고, 향에서도 이게 최하위가 맞음.

[7번] ①

제안개요 점수가 14점 미만인 C를 소거.

제안업체 일반현황에서 세부항목 간 점수 차가 10점을 초과하는 D를 소거. 사업수행계획이 총점의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A가 이 조건에 부합하므로 공장 ①을 골라 풀이 종료. 더는 조건이 없으므로 B, E가 변수일 수 없음.

[8번] ③

조건1: A와 D가 조건에 부합함. A에 문화청이 들어 있는 ①을 소거.

조건2: 남은 선지를 활용하면, A가 세무청이고 B가 자료청이면 조건2에 위배되므로 ⑤를 소거.

조건3: 문화청은 최솟값인 B일 수 없고 자료청은 최댓값인 A일 수 없음. B에 문화청이 있는 선지를 모두 소거하고 ③을 골라 종료.

[9번] ③

ㄱ. 전국 소비량이 약 550 정도이고, 이것의 40%(=2/5)는 220 정도임. 수도권 소비량이 이에 한참 못 미침. (이 어림에 자신이 없으면, 54×4만 해도 216으로 수도권 소비량 214를 넘어간다고 판단해도 쉬움)

ㄴ. A지역은 소비량 173에 발전량 339로 거의 2배에 가깝고, 수도권은 소비량 214에 발전량 144로 2/3 정도에 불과함. 2배는 당연히 넘음.

ㄷ. C와 D의 발전량 합이 300을 넘어가는데, 전국 발전량은 600보다 작으므로 50% 이상이 맞음.

[10번] ③

ㄱ. 저위기술산업군이 전부 감소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산업군을 확인. 중저위 기술산업군은 전부 감소가 맞음. 고위기술산업군은 21→22 첫 구간에 증가하고, 고위기술산업군은 22→23 구간에 증가함.

ㄴ.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건 기준연도와 같거나 더 큰 값이라는 뜻이므로, 이 선지가 옳으려면 모든 산업군의 2021~2023년 재고지수 각각이 2024년 재고지수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반례가 너무 많음.

ㄷ. 재고율이 100% 이상이라는 건 재고지수가 출하지수와 같거나 더 큰 값이라는 뜻임. 고위기술산업군은 이를 만족하고, 나머지 세 산업군은 대충 봐도 재고지수 쪽이 작은 게 곳곳에 눈에 띄.

[11번] ①

- ㄱ. 잉글랜드(74G 32승)와 스페인(67G 31승) 두 국가가 해당함.
 ㄴ. 이탈리아→아르헨티나 구간을 보면 경기수가 승점보다 크게 증가함.
 경기수<승점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면 비율이 감소함.
 ㄷ. 잉글랜드는 74G 22무, 독일은 112G 21무임. 무승부수는 비슷한데 독일의 경기수가 훨씬 많으니 독일이 무승부 비중이 더 작음.

[12번] ②

- (가) 24년 민간과 공공 각각 전기차가 하이브리드차보다 크므로, 합쳐도 전기차가 더 큼.
 (나) 민간부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수소차 빈칸이 더 채우기 쉬우므로 먼저 채움. 399에 8을 더해야 407이므로 빈칸은 8.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수소차 세로 합을 이용해서 빈칸을 채움. 73이 들어감. 시내버스...는 약 400 대비 8로 2%쯤 되는데 공시...는 8천 대비 73으로 1%도 안됨. 시내버스...가 들어감.
 (다) 공공-하이브리드차는 2022년에 최대(3,422)가 됨.

[13번] ①

데이터 레이블이 주어져 있으므로 온도지수와 습도지수의 가중치를 확인하고 단순 연산 풀이.

- A: 52×3 은 150쯤, 63×2 는 넉넉히 130쯤으로 잡아도 '주의' 범위에 들. A가 없는 ②, ③, ④를 소거.
 B: 두 지수가 모두 60을 초과함. 가중치 합이 5이므로(다섯 번 더하는 것과 같다) 둘 다 60을 초과하면 $60 \times 5 = 300$ 도 초과함. B를 소거하고 ①이 정답.

[14번] ③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포상분야 및 포상인원이 각각 매년 증가하였다.
 → 23→24 대통령표창 포상분야가 증가하지 않은 ②, ④ 소거.

특히 '국무총리표창'의 포상분야는 2024년이 2022년 대비 20 % 이상 증가하였다.
 → 25에서 28로 20% 미만 증가한 ① 소거.

2024년 정부포상을 포상분야 1개당 포상인원이 많은 표창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순이다.
 → ③부터 보면 장관표창이 40→280과 비슷하므로 대충 7배로 봐놓고, 국무총리표창이 30→141로 4.5배를 넘으며, 대통령표창은 6→27로 정확히 4.5배임. 조건에 부합하고 더는 조건이 없으므로 ③을 골라 종료.

[15번] ⑤

2024년 '갑'국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90개이고, 이중 행정위원회가 40개, 자문위원회가 550개였다.
 → ㄱ에서 2024년 행정위 비중이 7.3%로 나와 있는데, 590 대비 40이면 7%를 넘을 수가 없음($6 \times 7 = 42$ 이므로). ①, ②, ③을 소거하고 ㄷ, ㄹ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 내려감.

2024년 행정기관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행정기관위원회의는 전체 행정기관위원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ㄷ에서 4회 이상을 더해서 전체(590)의 절반인 295보다 작은지 확인해야 함. 큰 것부터 더해 가면 딱 300으로 절반을 넘음.
 ※ 100, 80, 60, 60으로 봐도 일의 자리가 딱 맞춰지도록 의도된 숫자들임.

[16번] ⑤

선지에 해당하는 수출대상국을 미리 체크해놓고 시작함.

- 조건1: 2023년 전체가 502,이므로 50,2를 넘는 리비아를 소거함.
 조건2: 전체 값이 30만에서 50만으로 늘었으므로, 이것보다 큰 증가율이어야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음. 수출량이 감소한 요르단을 소거하고, 증가율이 얼마 안되는 타지키스탄(12→16)도 소거함.
 조건3: 2021년 대비 20%가 늘었을 때 2021년 수출량이 12,000대 이상이어야 한다면, 20%가 늘어난 결과값은 14,400대 이상이라는 뜻임. 이것보다 2022년 수출량이 작은 키르기스스탄을 소거하고 튀르키예를 골라 풀이 종료.

[17번] ②

- ① A 지역은 323 → 343이고 D 지역은 257 → 235임. A는 1배가 넘는데 D는 그렇지 않음.
 ② B가 25% 이상이라면 B의 나머지는 75% 이하이고, 상대비 3배 이하가 성립해야 함. B의 도로 연장이 330이므로 나머지 셋의 합이 990 이하여 옳은 선지임. A, C, D를 더하면 990을 넘어감.

[18번] ②

- ① 조건문 선지이므로 전광판조명 민원건수가 감소한 구간부터 찾아 보면 21 → 22 구간이 있음. 이 구간에 장식조명 민원건수가 증가했으므로 틀린 선지.
 ② '공간조명'과 '수면방해'의 교집합이 최소 92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여집합 항목이 <표 1>과 <표 2>에서 각각 많으므로 둘을 더한 뒤 전체를 빼는 방향으로 해결함. 2023년 두 값의 합은 $1,107 + 829 = 1,936$ 이고, 여기서 전체 1,844를 빼면 정확히 92가 나옴.

※ 계산 방식

1,107과 829를 더할 때 암산이 어려우면 두 자리씩 끊는다. 1,1과 8을 더해 앞 두 자리의 19를 먼저 만들고, 뒤에 7과 29를 더한 36을 붙인다.

1,936에서 1,844를 빼는 연산은 1,844에 수를 더해 1,936을 만드는 방향으로 뒤집어 생각한다.

[19번] ⑤

해당월 물동량을 직전월 누적 물동량에 더하면 해당월 누적 물동량이 나오는 구조임.

- ㄱ. 7월 물동량을 이용해 7월의 누적 물동량을 구하면 1,937임. 8월 누적 물동량이 2,222가 되었으므로 8월의 물동량은 285로 7월보다 작음.
 ㄴ. 11월→12월 누적 증가폭을 보면 12월 물동량은 320임. 1월 물동량이 273이므로 47이 증가했고, 15%를 넉넉히 넘음.
 ㄷ. 12월의 누적 물동량 3,461이 연간 물동량이기도 하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월평균 물동량이 나옴. 12×300 이 3,600이고 여기에서 140(12×10 보다 조금 크다) 정도가 빠져 있으므로 평균은 290보다 살짝 작을 것임. 이보다 확실히 큰 달은 9~12월 4개가 있음. 빈칸인 3~4월을 추론해 보면... 2월 누적 물동량을 채우면 502임. 여기에 3~5월 세 달치를 더한 5월 누적 물동량이 약 870 증가했으므로, 3~4월 물동량은 거기서 5월 물동량을 뺀 590 정도임. 2개 평균이 590이면 적어도 하나는 그 절반인 295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것까지 합치면 5개 이상의 달이 됨.

[20번] ④

- ㄱ. 8.5 - 10.1 - 12.6 - 14.4 - 16.5 - 18.5로 매년 1%p 이상 증가함.
- ㄴ. 출연금이 260이므로, 사업비가 이것의 3배인 780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함. 합계가 주어져 있으므로 연산해보면,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합하면 475가 되고 이걸 합계 1,129에서 빼면 780이 안 남게 됨.
- ㄷ. <표>에 A의 예산액이 있으므로 이를 <그림>의 A 비중과 엮으면 전체 예산액의 변화율을 알 수 있음. 21년→22년 구간에 <그림>에서 A 예산액의 비중은 261 → 248로 약 5% 감소함. 그럼에도 A의 예산액은 900에서 1,080으로 약 20%나 증가함. 따라서 해당 기간 전체 공공기관 예산액이 적어도 25%는 증가했을 것임. C 예산액의 비중은 같은 기간 334 → 305로 10%도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액 실수치는 증가했을 것임.

[21번] ①

- A: 최하단에 모든 분류의 값이 나와 있으므로 끝자리만 더해서 판단하면 됨. 9+7+8+6의 일의 자리는 0이므로 ④, ⑤를 소거.
- D: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 재학생 미응시자를 구할 수 있음. 끝자리부터 보면, 접수 인원 6에서 응시 2를 빼서 미응시 재학생의 일의 자리 숫자 4가 나옴. 2025년 미응시 재학생 일의 자리는 8이고, 8과 4의 차이로 가능한 건 4, 6뿐이므로 ③을 소거.
- ①, ②를 검증하려면 십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함. 다시 <보고서>를 보면 46명에서 02명을 빼는 상황이므로 끝 두 자리가 44명이 됨. 88명과 44명의 차이라면 56이 가능함(88에 56을 더하면 받아올린 뒤 44가 남음). ①을 골라 종료.

[22번] ⑤

- ㄱ. 3주→4주 구간에서 A는 증가이지만 B는 감소임.
- ㄴ. A의 냉장 고등어는 77→62이고 냉장 오징어는 165→135임. 감소폭이 정확히 2배이므로 냉장 고등어의 기준값을 2배로 올려 생각하면, 고등어는 154에서 30 감소했고 오징어는 165에서 30 감소한 것이 됨. 감소폭이 같으면 기준값이 작을수록 증감률이 크므로 A 쪽에서는 고등어를 체크 해 둬.
- B의 고등어는 117→123이고 오징어는 267→263임. 기준값이 더 작은 고등어가 더 크게 증감했으므로 이쪽도 고등어의 증감률이 더 큼.
- ㄷ. 평균이 주어져 있으므로 4~5주의 편차 합을 구할 수 있음. A는 1~3주 편차 합이 -37이므로 4~5주 편차 합이 +37이 되어야 함. B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23이 나옴.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A의 4~5주 합은 평균 × 2 + 편차 = 29,700원 이고 B의 4~5주 합은 25,700원이 됨. 이러면 4~5주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A가 B보다 값이 커야 함.

[23번] ①

총구매액의 감소폭을 비교시켰으므로, 각 수산물마다 A에서 구매할 때의 금액 감소폭을 구해 필기해둔 뒤 수량을 곱해 비교하는 것으로 구도를 세우고 시작함.

고등어는 B 14,100원에서 A 6,700원으로 -74
오징어는 B 26,400원에서 A 14,300원으로 -121
명태는 B 6,100원에서 A 2,300원으로 -38

오징어의 감소폭이 가장 크므로, 오징어 구매량이 가장 많은 읍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읍을 기준으로 잡음. 읍에 비하면 갑은 121을, 병은 242를, 정은 363을, 무는 484를 덜 이득 본 셈임.

이 격차를 고등어와 명태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를 눈대중해 보면, 가뜰이나 1개당 감소폭도 더 적은데 읍과 갑병정부의 고등어 구매량이나 명태 구매량에 큰 차이가 없음. 오징어에서 가장 차이가 작은 갑은 고등어를 1개만 더 샀고(74 이득) 명태 구매량은 똑같아서 역전이 불가능하며 병정부는 계산해 볼 것도 없어 보임. ②를 골라 풀이 종료.

[24번] ①

- ㄱ. 원점수 1등 국가가 변환점수 만점을 받으므로, 각 부문별 변환점수 최고 점을 보면 배점을 알 수 있음. 논문은 10, 특허는 20, 전문가 평가는 70임.
- ㄴ. 독일의 '논문' 부문 원점수가 50점 증가하면 112점이 됨. 바로 위 프랑스가 원점수 56점에 변환점수 0.7을 받았으므로, 56점의 정확히 2배인 112점은 변환점수 1.4를 받음. 독일 변환점수가 0.8이므로 기술점수가 0.6 오르는 것인데, 이걸로는 프랑스의 기술점수를 역전할 수 없음.
- ㄷ. 배점이 서로 바뀌면 변환점수를 산출할 때 곱하는 수가 바뀌는 것이므로, 논문과 특허의 배점을 서로 바꾸면 논문의 변환점수는 2배가 되고 특허의 변환점수는 절반이 됨. 이스라엘은 대만에 비해 특허에서 변환점수가 높고 논문에서는 오히려 밀리는데, 이 둘의 배점을 바꾸면 더 불리해지기만 함.

[25번] ⑤

- ㄱ. 스위스는 1위이고 중국은 11위이므로, 선지에서 언급한 국가는 2~10위 국가임. 고소득 그룹에 2~10위가 모두 들어 있음.
- ㄴ. 41~50위 중 표에 드러난 건 중상소득의 태국(41)과 브라질(50), 중저소득의 베트남(44)뿐임. 중상소득은 41~50위 앞뒤 순위들이 모두 드러나 있어서 41~50위 안의 다른 순위가 없음이 확정적이고, 중저소득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은 가장 높은 순위가 104위이므로 마찬가지로. 41~50위 안의 나머지 7개 순위는 모두 고소득그룹에 있을 수밖에 없음.
- ※ 각 그룹마다 GI 순위대로 정렬되었음에 유의할 것.
- ㄷ. 마다가스카르는 110위이고 순위 부여 대상 국가가 133개국이므로, 이곳 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23개국임. 저소득그룹에 마다가스카르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가 8개 있으므로 이를 빼면 15개국이 남음.

저소득그룹 국가 수가 10개국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관찰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음. 저소득그룹 국가는 표 밖에 존재하지 않음.